



승강기 안전 블로그(blog) 기자단을 기획하고 싶었던 것은 '정보네트워크의 강화'를 위해서였다. 흔히, 21세기를 정보화 시대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처럼 정보를 손쉽게 얻거나 가공할 수 있는 나라도 드물다. 반도체와 IT(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은 우리나라를 단숨에 초고속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반도체 특유의 조급한 성격과도 잘 맞아 떨어지면서 초고속 인터넷 문화는 많은 사람들을 '노리터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줬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 지식IN'에 물어보라는 말은 이제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다. 현대인에게 인터넷은 생활속 해결사를 넘어 생활의 필수가 돼 버린 지 오래다. 만일 '인터넷이 없었더면 어떻게 인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자존심인 질문을 던져보기도 한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소통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일방적인 정보전달이라는 점에서 기성 미디어와 크게 차별이 없었다. 정보를 가공하고 유포하는 점에서도 그 방법이 기성신문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결국 인터넷은 기성 종이신문에게 자리

를 내주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초상기 '인터넷 배제'가 다양한 계층을 시민기자로 참여시키면서 신선한 불을 일으켰지만, 최근에는 시들진 이유도 시민기자들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일에는 실패했다. 기성 취재방식과 원고작성을 고

집하다보니, 비전문적이고, 기사작성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시민기자들의 관심에서 자연히 멀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블로그는 신선하다 못해, 가히 폭발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인터넷 공간에 채울 수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 현재 '네이버'(Naver)에만 천만명이 넘는 블로그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 네이버 블로그는 120% 이상 성장했다.



양억만
한국승강기안전센터원 홍보팀
02-3497-1413

블로그의 시장은 간단하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고, 동영상, 작문, 사진, 음악까지 거의 모든 기술의 접목이 가능하다. 이용도 간편하다. 원고작성에 소질이 없는 사람들도 '파워블로그'가 될 수 있다. '귀차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퍼뮤니트'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로 옮기는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멋진 블로그를 꾸밀 수 있다. 차별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파워블로그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블로그의 힘이다. 기존의 인터넷 미디어가 갖고 있던 일부 기자들의 영역과 내용의 아이디어의 단조로움을 파괴시킨 것이다.

특히 포털사이트(흔히 검색사이트를 지칭함)와의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1인미디어'란 칭호도 열리게 됐다. 지난해 12월에 오픈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블로그(<http://blog.naver.com/ekmann>)도 하루 100여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사실 파워블로그들에 비하면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상시적으로 방문자를 체크할 수 있고, 이들이 남긴 댓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다.

블로그는 기존의 양방향 소통이라는 딜레마를 간편하고 기능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소했다. 또한 블로그 아이템 중 하나인 '이웃맺기' 콘텐츠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칫 '배설'될 수 있는 소통과 참여를 더욱 깊고하게 만들어 줬다.

최근 홍보팀에서는 50명의 개인블로그와 4개팀의 단체블로그를 선발했다. 4월 26일에는 30여명이 참석한 발대식도 개최했다. 이들 블로그들은 고등학생, 대학생, 공공기관 근무자, NGO(지정부기구) 활동가, 프리랜서 등 다양하다.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자유롭다. 특히 편견 없는 시선은 '승강기 안전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KESI 블로그 기자단'을 관리하고, 승강기 안전과 우리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일이다.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득하고 각인시키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질 과제다.

이제 홍보팀은 3명이 아니다. 단체를 합해 50명이 넘는 블로그와 KESI 출입기자단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란 벽을 허물고 있다. 내가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뻐이 보기도 하지만, 역시 아니다. '블로그로 세상을 훑쳐라'는 타이틀처럼, 우리는 블로그를 통해 '승강기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이미지를 높이고, 생기있는 기관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

세종대왕이 보수적인 조선왕조에서 최고의 리더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계급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었던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블로그는 소통이다. 그리고 확산이다.

우린 기대가 크다. 기존과는 차별된 새로운 홍보패러다임이 시작됐다. 내년이면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로그들은 이미 '에스킬레이터두줄다기안전시뮬동아리'를 만들어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블로그들의 어떤 활동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된다.

| 기술표준 2008.7